

- 이 편지의 검은색 부분은 운자님이 아버지께 쓴 편지입니다
- 이 편지의 파란색 부분은 아버지께서 운자님께 쓴 편지입니다
- 페이지 번호는 보내주신 pdf파일의 페이지 번호입니다.
- 보내주신 pdf파일의 페이지 번호가 시간 순서상 맞지 않으면 (시간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자리를 찾아 넣었습니다.

운자와 아빠의 편지

1

PAGE 1

#279 (ST No.279)

1969년 6월 19일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려요. 온 세상이 초록으로 웃을 갈아입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이 계절을 아빠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커다란 아빠의 사랑과 도움 덕분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아빠의 편지를 받아 보는 만큼 자주 아빠께 편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분명히 미국 그 멀어서 제 편지를 읽으며 행복해하실 아빠를 알기 때문에 저도 행복해요.

오늘은 5월 한 달 동안의 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학교에서 5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개교 68주년을 기념하는 큰 축제가 열렸어요.

학술 토론회, 국제 초청 설교대회, 문학의 밤, 외딴 마을과 어촌마을을 위함 밤, 찬송가 경연대회, 여학생 후원회 주체아래 자선 바자회, 주일학교 교사 포럼 같은 다양한 행사가 있었어요.

또 23,24일에 종일 운동회가 열려 많은 경기를 했는데 우리 과는 2등을 차지했어요.

우리 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큰 신학교이면서, 우리나라 모든 교파를 아울러 선도를 달리는 학교예요.

사랑하는 아빠.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는 아빠의 나라에서 공부해 보고 싶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학교에서 6월 3일부터 5일까지 훌륭한 목사님의 인도로 부흥회를 가졌는데 정말 은혜로웠어요.

7월 8일에는 기말고사가 있고, 11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돼요.

저는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마을들을 방문하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저는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학생 선교회 the Christian Crusade team에 가입하려고 한답니다.

아빠, 편지를 더 자주 쓰도록 할게요. 지금도 아빠가 정말 많이 보고싶어요. 편지와 함께 제 사진을 보냅니다.

우리 학교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이제 사진을 꽤 잘 찍어요.

사랑하는 아빠, 아빠가 매달 31.5달러를 보내주셔서 저는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저는 아빠의 한없는 사랑과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빠, 자주 만나요. 오늘은 이만 편지를 마칠게요. 곧 또 편지 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이만 안녕.

사랑을 담아

아빠의 딸 운자 드림

PAGE 2

Child's Name and No. #51 Kim Un Ja

Orphanage Name and No. #119 Holy Love Chr.Orph.

1969년 7월 16일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뭇잎들은 초록이 짙어지고, 여름은 정말이지 행복한 계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안정적인 삶을 허락하셨으니 많이 행복하시죠?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한국 딸인 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기도과 도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제 생각에 지금은 여행하기 정말 좋은 계절 같아요. 아버지는 이번 여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지만 일이 많고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번 여름 방학기간 동안의 제 계획은 7월 20일부터 5일동안은 산악부흥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 25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농촌 마을의 몇몇 교회를 방문해 섬길 거랍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지역 교회에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1년마다 지역 교회들을 방문해야 하거든요.

제가 방문해야 하는 교회는 9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 교회인데, 저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성경선생님이 되어 주일 예배, 어린이 주일 학교, 아침 기도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일을 해내는 것이 제게는 버거운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믿음을 갖고 그 곳에 가보려고 해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들려 드릴게요.

오늘, 1969년 7월 16일 10시 32분에 아폴로11호가 달을 향해 출발할 거래요.

사람들은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발사장면을 보려고 분주하네요. 라디오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아버지, 과학의 힘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여기 한국은 장마철이어서 젖은 줄곧 성경을 읽고, 피아노를 치며 시간을 보내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무엇이든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희망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요.

저를 사랑해주시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래요. 또 편지할게요.

그럼 이만

사랑을 가득 담다,

아버지의 딸 은자 드림

PAGE1

사랑하는 운자에게

나는 지금 일본에 있다. 9월에 너를 찾아가보려고 해.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략 19일에서 21일 사이에 도착할 듯구나.

즉시 일본에 있는 내게 네 전화번호나 주소를 적어 보내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공항에서부터 너희 집까지의 경로도 지도로 그려 보내주면 고맙겠구나.

그리고 너를 만나러 갈 때 택시를 타서 기사님께 말해 줄 수 있도록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네가 있는 곳도 정확히 적어 보내주렴.

너를 만나 너와 함께 보낼 며칠을 생각하니 나는 매우 긴장된다.

사랑을 가득 담아 쓴다.

PAGE2

사랑하는 운자에게

나는 며칠만에 또 편지를 쓸테지만 지금 말해주고 싶구나. 나는 일본 집에 빠르고 안전하게 잘 돌아왔다.

내가 착각했어. 2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던 것 말이다.

비행시간은 겨우 1시간 15분이었던다.

이번 서울 방문에서 단 하나 아쉬운 것은 너를 나와 함께 데려오지 못하고, 너무 일찍 떠나왔다는 거야.

나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같아. 내가 너를 직접 만나게 되면 네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할 거라는 걸 말이야.

내가 너의 편지를 읽으면서 상상해 보았던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동안 알게 되었던 너의 모습, 바로 그대로였다.

마침내 너를 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기뻐.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구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정말 기쁘단다.

히로코가 너에게 안부와 감사를 전해달라는데. 네가 준 선물을 항상 소중히 여길 거래.

마이클은 나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

그 아이는 평소 나를 깨우려 왔던 것처럼 매일 아침 내 방에 들어왔었다는구나. _ 그런데 나는 거기 없었잖니.

이제 마이클은 다시 행복해졌지. 왜냐하면 세 공을 갖게 되었고, 다시 나와 함께 있게 되었으니 말이야.

오늘 밤에 마이클은 자러 갈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침대에 누었다가 나를 본다고 내 방에 또 왔지 뭐니.

그 아이는 세 공을 공중에 던지고 노느라 내 방에서 한 시간이나 머물렀단다.

그 공을 정말 좋아해. 네가 그렇게 사려 깊은 선물을 해 줬다는 것에 대해 많이 감사해하고 있어.

아직도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다시 편지해야 할 것 같구나.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사진을 보내주도록 하마.

사랑하는 운자야, 나는 정말 나의 귀한 딸인 네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말야, 나는 아주 많이 널 사랑한다.

_아빠가

PAGE 3

1970. 10

사랑하는 아빠

아빠를 만나서 정말이지 행복했던 9월이 어느덧 가고, 벌써 낙엽이 떨어지는 10월이 되었네요.

무사히 일본에 도착해 엄마와 마이클을 만나셨다는 편지를 받으니 얼마나 좋던지요.

아빠와 헤어진 지 겨우 열흘 지난 건데, 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만 같아요.

아빠의 사랑과 도움으로 저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빠와 서울에서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이지 아빠와 함께 있었던 며칠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아빠에 대해 상상했던 것보다 아빠와의 만남이 훨씬 더 큰 기쁨이 되었기에, 아빠와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아빠의 상황과 제 상황은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아빠가 김포공항을 떠날 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빠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빠가 탄 비행기가 서울을 떠날 때는 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비행기가 떠날 때까지 작별대에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 앉아 아빠가 저에게 주신 성경말씀을 묵상해보았어요.

갑자기 저는 제가 아빠와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또 6시 반에는 한 시간동안 영어 학원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바쁜 생활속에서 저는 자주 아빠 생각을 하며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시 아빠를 만나면 혼자 힘으로 아빠에게 영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또 아빠가 제게 보내주신 마이클의 사진을 자주 꺼내보며 마이클이 곁에 있다면 그 아이와 놀아 줄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아빠!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량없기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그제야 움직일 수 있어요.

아빠에게 또 편지할게요. 엄마와 마이클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아빠가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사랑을 담아

아빠의 딸이.... 서울에서

PAGE 3

1970년 10월 22일

사랑하는 딸 은자에게

여기 일보은 아침 저녁으로 정말 신선해졌고 바람은 단풍들을 흩날리고 있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느냐

나는 우리의 본향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생애 대해서 생각한다.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김포공항 작별대에 서 있던 너의 아름다운 얼굴을 본 때가 말이야.

비록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나와 함께 있었고,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너를 아주 잘 알게 되고 잘 이해할 수 있었어.

언제나 너의 편지를 읽으며 느꼈던 감정과 똑같은 친근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지금, 내가 아주 많이 그림다. 그래서 너의 사진과 너에 대한 많은 것들을 전해주는 너의 편지가 아주 반갑구나.

내가 동봉한 꽃은 나의 딸이 보내 준 사랑스런 선물이란다. 그 꽃이 정말 마음에 들어.

은자야, 네가 영어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행복하다.

너는 당연히 영어로 말하는 걸 연습하고 있겠지.

그래서 나는 네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함께 영어로 말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영어로 녹음된 메시지가 담긴 테이프 몇 개 보내줄게.

어쩌면 네가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중요한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네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래본다.

돌아와서 너에게 바로 카세트 플레이어를 보내고 싶었지만, 소니의 새 모델이 곧 나오다기에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곧 우편으로 보낼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어.

나는 캠페션 사무실의 여자씨에 그걸 보내줄 거란다. 그녀가 그걸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했거든.

이번 편지에는 사진을 몇 장만 동봉하고 나머지는 카세트 플레이어와 함께 보내게

은자야, 나와 논의해 보고 싶은 성경구절들이 많이 있다. 네가 나와 함께 그런 토론을 할 수 있기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 구절들 중에 몇 가지에 관한 것만 적고 일부는 테이프에 녹음해서 보내주려 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거야.

철학은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인간의 지혜안에만 있잖니. 시편 62장 11절에서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만물을 자기 뜻대로 역사하시니 이는 우리의 존귀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1)

기독교 친구들과, 기독교 사감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안부 전해주렴. 그리고 특별히 전연순 씨와 주 교수님께 안부 전해드려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의 영으로 너를 계속 가르치시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가

PAGE5

1970년 11월 4일 서울에서

사랑하는 아빠

아빠 오늘 제가 혼자서 아빠에게 편지를 쓰려고 해요.

이런 건 처음이라 엉망인 제 영어실력이 매우 걱정스럽지만 아빠는 이해해 주실거라 기대합니다. 제가 실수하면 알려주세요.

아빠, 저는 잘 지내요, 특히 영어 공부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음,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잘 지내고 계시죠?

모두 잘 지내시고 또 아빠의 선한 사역이 계속 잘 되길 소망합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지난 편지에서 곧 편지 쓸 거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매일 아빠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요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한국에서 아빠 딸 은자 드림

PAGE 6-7

1970년 11월 12일

사랑하는 아빠&엄마

몇진 편지와 동봉된 사진들을 받으니 정말 행복해요, 그건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그것들이 정말 좋아요. 아빠, 엄마가 저를 진짜 딸로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없는 사랑과 친절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빠를 만났던 게 정말 정말 좋았어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아빠, 저는 아빠의 조언이 필요해요, 그러니 제게 성격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세요.

아빠의 조언은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거든요.

성경을 읽는 게 무척 재미있지만 가끔 혼자서는 잘 이해되지 않기도 해요.

아빠, 한국은 겨울이 오고 있어서 나무에 달려 있는 잎들이 땅 위로 내려 앉고 있어요. 일본과 많이 비슷할 거예요.

아빠, 저는 아빠의 소중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가족분들의 생일은 언제예요?

엄마와 마이클 생일이요. 저는 아빠 생일만 알고 있거든요.

아빠의 생일은 11월 17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음주 일요일, 우리는 모두 함께 추수 감사절을 축하할 거예요(교회와 학교 사람들이요). 아빠도 저와 갈게요.

아빠, 기숙사 친구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고, 아빠에게 안부전해 달래요. 특히, 사가선생님과 영산 씨가요. 그녀는 제게 많은 도움을 주세요.

아빠, 시험이 12월 4일부터 4일까지라 대략 20일 남았어요.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시험이 끝나면 학교는 겨울 방학이 시작되고 문을 닫습니다.

아빠, 아빠와 아빠의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빠의 모든 것을 영원히 축복해주시기를 바라며

아빠의 사랑하는 딸, 한국에서 은자 드림

PAGE 8-10

1970년 11월 30일 서울에서

사랑하는 아빠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도 더 가까워짐을 느껴요.

저는 매일매일 가지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빠가 친절히 보내주신 제 사진과 아빠의 편지, 그리고 그 편지 속에서 제게 카세트 플레이어를 보내주실 거라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엄마와 마이클도 잘 지내고 계시죠? 아빠의 다정한 사랑 덕분에 저도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요.

지난 번 편지를 쓰그는 한 열흘 정도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 봤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제가 약간 신경과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맥이 없고, 두통도 있었거든요. 제게 휴식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제가 뭔가를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가끔은 공부할 쉬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지금쯤 좋은 약과 기도로 거의 다 나아어요.

요즘은 12월 4일에서 10일에 있을 시험 준비로 너무 바빠요.

아빠의 사랑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학을 잘 지낼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 방학동안 영어학원에 다니는 대신에 아빠가 보내주신 카세트 플레이어로 영어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컴패션 서울 사무실에 가서 직원분께 아빠의 편지를 보여줬는데, 놀랍게도 최근 관세법이 바뀌어서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는 세금을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 카세트 플레이어 수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10달러 이상인 물품의 경우 가격만큼이나 세금이 부과된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에게 돈을 보내주시는 거라 생각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빠가 이미 카세트 플레이어나 라디오를

사셨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아 빠가 사 주시는 녹음기를 갖고 싶어요.

만약 한국에 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걸 서울에 있는 컴패션 사무실에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대요.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싶은 건 카세트 플레이어지 돈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빠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니까요.

저는 11월 3일부터 3월3일까지 3달동안이나 긴 겨울 방학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2월 15일에는 기숙사를 떠나야만 해요.

하지만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서울일지 지방일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겨울 방학동안 문 단은 기숙사에 있지는 않는데지만 편지는 기숙사로 보내주세요.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가끔 제가 연락드리면, 제게 아빠의 편지를 전해주시길 거예요.

다음 편지에서는 제가 방학동안 지낼 주소를 아빠에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래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은자가 서울에서

추신. 컴패션 직원분이 말씀하시길 가능한 한 빨리 아빠에게 이번 문제에 대한 상세한 편지를 드린대요.

PAGE 4

사랑하는 은자야

네 편지를 받으니 정말 좋구나. 꽤 긴 편지인데 아주 훌륭한 영어로 잘 써져있더라.

네가 쓴 모든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

네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그만 두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네 모습 그대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란다.

그래 나도 동참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은 그의 신부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그와 함께 있는 영연한 나라로 데려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거야.

만약에 우리 주님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고히히 여기셔서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나는 다시 한번 서울에 방문해 며칠 동안 너와 함께 지내고 싶구나

나는 12월 17일 목요일에 한국에 갈 수 있어.

대한항공을 타고 가면 오후 5시 5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 거 같아.

네 카세트 플레이어와 기타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때 서울에서 네가 있을 만한 곳을 내게 말해 주렴.

네가 서울에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많이 보고 싶고 너와 이야기 나누고 싶거든.

네가 서울에 있게 된다면 편지에 적어줘. 그리고 YMCA 호텔에 전화를 걸어 12월 17일, 목요일 밤부터 며칠 정도 나를 위해 싱글룸 하나를 예약해 주면 좋겠다.

사랑을 가득 담아, 아빠가

PAGE 5

사랑하는 은자에게

12월 17일 목요일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좌석을 예약하지 못했단다. 이미 예약이 다 찼더라고

그래서 12월 19일 토요일 일본항공으로 예약을 했어.

김포공항에는 오후 5시에 도착할 것 같다

티켓을 수령하러 가기 전에, 네가 서울에 있는지 아닐지를 알아야 하니까 네 편지를 기다려봐야겠다.

만약 네가 서울에 있을 거라면 YMCA 호텔 예약을 토요일로 바꿔줄 수 있겠니? (목요일 대신 말이야)

나는 수요일에 서울을 떠나야 해.

가능하다면 나는 내 사랑하는 딸을 곧 다시 볼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랑의 돌보심과 완전함 안에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사랑을 담아 내 소중한 딸에게, 아빠가

PAGE 11-12

1970년 12월 28일

사랑하는 아با께

오늘은 정말 추운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 서울은 매일 점점 더 추워지고 있어요.

아빠, 집에 안전하게 잘 도착하셨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잘 지내시죠?

저도 아바의 기도 덕분에 잘 지내요.

아빠가 이 곳에 계시는 며칠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를 알게 된 이래로 제게 있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아빠, 제게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어보신 적은 없죠?

아빠는 물론, 특별히 엄마의 사랑에 대해 어떤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카세트 플레이어와 라디오의 도움 받아 열심히 영어를 배우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성경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예요.

아빠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에 아바를 통해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그 말씀들을 나누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언제나 정말 흥미로워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져요.

아빠, 저는 정말 아바와 함께 살고 싶지만 제 생각에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바의 기도와 조언은 언제나 저를 지켜줄 거예요.

아빠, 사실 저는 방학 내내 서울에 머무를 거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녀와 함께 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서울에 남아 계속해서 교회를 도울게랍니다.

아빠 제가 받아야 하는 편지는 기속사로 보내주세요.

기속사 사감 선생님과 전 선생님이 안부 전해 달라주세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아바가 찍어 주신 사진을 받고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빠, 아바에게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바의 사랑하는 딸, 은자가 서울에서

PAGE 6

사랑하는 온자에게

일본은 이맘때가 되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 네가 있는 서울은 훨씬 추울 거라 생각해.

나는 기도한다. 네가 우리 주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기를 말아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얼마 전 경미한 사고를 당해 오른 손을 나군데 다쳐서 잘 사용하지 못했단다. 이제는 좀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아지만 손가락이 전혀 힘 강해지려면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절뚝한 것들에 대해 길게 글을 써주고 싶었지만 내 생각에 그러기엔 내 손이 완벽하게 치료되기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구나.

네가 성경공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쁘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즉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니니까(요 10:30-글 1:15)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마24:35)라고 하셨어.

(이사야 51:6 / 베드로전서 1:24,25 ↔ 이사야 40:3~8)

바울이 편지에 쓴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해.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야_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에서 말했듯이 말이야

사랑하는 딸아,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써 줄게.

사랑스런 곳 고맙구나. 아주 마음에 든단다.

그리고 나를 위해 녹음해 준 사랑스럽게 노래하는 네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행복하다.

사랑을 담아, 아버가

PAGE 13

1971년 2월 15일. 한국

사랑하는 아빠, 엄마께

날씨가 너무 추워요(영하 12도 이하래요)

아빠에게 연락을 받고는 너무 좋았는데 아빠가 사고로 다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놀랐지만 아빠를 위해 기도하며 빨리 나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빠, 저는 극동방송에서 오후 5시 30분에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라"를 공부하고 있어요.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하는 "살아있는 신약성경"도 좋아요.

정말 잘 듣고 있어요_ 테잎에 녹음된 대화, 찬송, 특히 제가 좋아하는 멋진 아빠의 목소리요.

저 전보다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아빠, 나쁜 소식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는데 불편이거든요.

요즘 신경과민으로 제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요. 더 안 좋은 건 두통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통증이 없다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빠, 제 친구 중 한 명의 결혼식 날에 사진을 찍었어요. 신랑과 신부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2주 뒤에는 새학기가 시작되니 기숙사로 돌아갈 거예요.

아빠! 아빠 애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께 안부 전해주세요.

잘 지내세요. 하나님께서 영연히 아빠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빠의 사랑하는 딸, 온자 드림

PAGE 14

1971년 3월 14일

사랑하는 아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제 봄이 왔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 온도는 마치 겨울 같아요.

부상당한 팔이 이제야 나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빠, 지금은 어떠세요? 2월 17일에 쓴 제 편지는 받으셨나요?

아빠에게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많이 보고싶어요.

아빠의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매일 아빠 사진을 보는 게 정말 좋아요.

사랑하는 아빠, 저는 겨울방학 동안에 몸이 많이 약해졌었지만, 3월 3일 개학 이후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이건 아빠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긴 겨울 방학 동안에 체력이 되지 않아 공부할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속상해요.

하지만 녹음기와 라디오로 영어 공부는 자주 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오전 6시 30분, 오후 5시 30분에 한국의 기독교 방송사 중 하나인 기독교방송에서 하는 '영어성경공부' 듣는 걸 좋아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내년에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이제 겨우 1년 남짓 남았네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드릴 거예요.

저의 모든 근심과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공부에만 전념하려고 해요.

저와 제 미래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빠.

지금은 편지에 좋지 않은 학업성적을 동봉하지만 다음 번에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제 학비와 생활비에 대해 아래에 설명드립니다.

봄학기 등록비38,100원 (한학기 별)

기숙사 비7,000원(월별)

교재비와 교통비5,000원 (학기별)

교통비3,000원 (월별)

컴패션을 통해 받는 비용.....9,765원 (월별)

사랑을 담다,

아빠의 한국 딸, 은자 드림

PAGE 15-1b

1971년 4월 7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

행복한 부활절 인사드려요. 서울에는 봄이 왔고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통증은 여전한가요? 오른팔은 어떠세요? 모든 게 좋아지기를 바랄게요.

저는 그냥 잘 지내요. 그리고 제 일도 정말 잘 하고 있어요.

제게 문제가 있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빠에게서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비록 아빠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어떻게 봄을 보내시는지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엄마와 마이클에 대해서요.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마이클은 전보다 훨씬 많이 자랐지요?

그걸 가라 생각해요. 가끔 카세트 테이프에서 마이클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마이클이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대화문을 연습하느라 테이프 들으면 마이클은 언제나 노래를 부르던걸요.

아빠, 지난 달 말 캠페션 사무실에서 (172달러짜리) 수표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 생활비와 수업료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빠께 감사드려요.

아빠에게 전해주려 소식을 있어요.

아빠, 저는 연일 장로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어 전에 예배드렸던 곳을 떠나야 했어요.

연일교회는 서울의 중심부에 있어서 제가 있는 곳에서도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고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교회를 추천해 주셨어요.

1971년 4월 7일에 씌요.

PAGE 7

사랑하는 온자에게

오랫동안 편지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너를 무시한 건 아니란다.

나는 언제나 너를 생각하고 있었어.

음, 네가 몇몇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 때문에 걱정했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에 기쁘더구나.

나는 너의 어려움을 덜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2학기 성적표 사본을 보내줘서 고맙다. 정말 잘 했더구나.

시카고에 있는 캠페션 사무실에서 한달 전에 나에게 너의 첫 학기 성적표 사본을 보내주었어. 그 성적도 아주 좋더구나.

나는 네가 틀림없이 열심히 공부했음을 알고 있어.

"성경으로 돌아가자"로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겠니? 한국어로 된 것이 있니?

드디어 따뜻한 봄날씨가 찾아와서 다행이다. 일본에는 벚꽃이 많이 피었어.

나는 최근에 새로운 일정을 시작해서 많은 설교를 하고 있다. 몇 개의 성경반과 영어수업

이번 달에만도 75명 이상의 새로운 학생을 만났단다.

너의 수업료와 경비가 올랐다는 걸 몰랐어. 미안하다. 그래서 나는 전과 같이 캠페션에서 얘기했던 금액 그대로를 보냈단다.

2학기에는 돈을 좀 더 보낼게.

너와 너의 미래에 대해 기도하고 있어.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 보내 준 사랑스러운 꽃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빠가

PAGE 17-18

사랑하는 아빠

아빠 저는 1971년 6월 14일에 아빠에게서 멋진 카드를 받아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 소식을 듣게 된 것도 정말 좋고요. 아빠의 친절한 사랑에 정말 감사드려요.

아마 아빠가 제 생일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뻐했지 아빠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내주신 카드에 담긴 사랑스러운 꽃은 아빠의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항상 기억나게 해 줄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 아빠의 사랑하는 엄마와 귀여운 마이클, 그리고 아빠는 이 더운 여름날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큰 아빠의 사랑과 도움으로 저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빠, 아빠에게서 아름다운 카드를 받고서도 바로 편지 드리지 못한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는 지난 주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과 함께 산에서 기도하고 와서 너무 바빠요. (6월 18,19일)

아빠, 6월 2일부터 8일까지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7월 9일부터 2달 동안의 여름방학이 시작돼요.

방학동안에 저는 서울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연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하거든요.

하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이끄기 위해 지역교회와 나환자 요양소를 다닐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에서 저를 초대했지만, 모든 교회를 갈 수는 없어요.

저는 영어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하고, 졸업 논문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빠가 기도해 주셔서 아주 좋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 아빠에게 감사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빠, 아빠의 여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도 알고 싶어요.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요.

아빠의 따뜻한 사랑이 조용히 제 마음에서도 느껴져요.

항상 아빠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기를,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영어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극등방송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있고,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성경공부를 할 거예요.

가족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또 편지할게요.

아빠의 사랑스런 딸, 은자 드림

PAGE 8

1971년 7월 20일

사랑하는 딸, 은자에게

나는 네 마음이 가득 담긴 편지와 네가 항상 편지와 함께 보내주는 아름다운 꽃을 받고는 정말 행복해졌다.

나는 언제나 그것들을 종이 위에 우아하게 배열해 놓아서 나는 그것들을 보는 게 참 좋아. 그리고는 이내 너를 생각한다.

내가 생일카드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기뻐어.

그런데 컴패션으로부터 내가 생일선물로 보낸 20달러는 받지 못했나?

나는 네가 원일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것에 관심이 많단다.

책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단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거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지만, 그가 자발적으로 하게 하신단다. (빌립서 2:13)

단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실거야 (히브리서 4장 14~16절)

언제나 기억하렴.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란다.

그래서 네가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말아야. (로마서 8:29 -요한복음 3:2)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하실거야 (빌립서 1:6)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부차적인 거야. 그건 말이지 그 분이 네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결과물일 뿐이란다.

매일 성경을 공부해야 해. 그건 너를 자라나게 하는 양식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지.

(요한복음 6:26~27)

PAGE 19

1971년 7월 14일 서울에서

사랑하는 아빠

나뭇잎들은 더 푸르려졌어요. 여름은 정말이지 기분 좋은 계절이에요.

아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 놓인 아빠의 삶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고 계신가요?

여기 한국에 있는 아빠의 딸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빠의 기도와 도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엄마와 귀여운 마이클, 그리고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시길 바래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감사의 편지를 쓰지 못해서 속을 많이 태웠어요.

선물로 보내주신 20달러를 7월 14일에 받았거든요.

저는 그 돈으로 새 영어 성경사전과 연필스를 샀어요. 새 성경사전이 꼭 필요했거든요.

너무 큰 은총을 받아서 저는 제 입술로 감사의 찬양을 드릴 것 밖에 없어요.

지난 주 7월 18-19일에 주일학교 교사교육이 있었어요.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여름성경학교를 열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하기 위해 지역 교회를 여러 곳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장마철이에요.

저는 성경공부를 더 열심히 할 테니, 가족들께 제 마음을 가득 담아 안부 전해주세요.

또 편지 드릴게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은자 드림

PAGE 20-22

1971년 8월 18일 서울에서

사랑하는 아빠

아빠의 편지를 받으니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아빠와 가족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제가 요즘 멀리 가 있어서, 답장이 늦어 아빠를 오래 기다리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해요.

아빠의 편지가 기숙사에 도착한지 20일이 넘었더라고요.

실은 언일교회에서 있는 고사교육(7월 18-19일)과 여름성경학교 (7월 26-31일)에 참가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8월 2-7일에는 서울에서 6시간 거리에 있는 대곡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가르쳤어요.

8월 9-11일에는 서울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주암교회에서도 또 다른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구요.

제가 기숙사를 떠나 있는 동안이었고 또 그 사이 기숙사에 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아빠에게 답장을 드릴 수도 있어요.

8월 16일에 기숙사에 들렀을 때, 기숙사 사감님께 아빠의 편지를 전해 받았어요.

답장 빨리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빨리 아빠를 도와드리지 못했던 거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교회 주소를 아빠에게 말씀드렸다면, 아빠는 제게 하나님을 위한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셨을텐데요. 아빠와 자주 소통하도록 노력할게요

7월 14일에 컴패션 사무실로부터 20달러를 전해 받고는 정말 기뻐요.

그 돈으로 언피스 한 벌을 샀고 새 영어성경사전도 샀습니다.

아빠의 한없는 사랑과 선물로 보내주시는 돈도 정말 감사해요.

아빠, 요전 날 영락장로교회 목사님께서 2달 동안 그 책들을 제게 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가능한한 빨리 그 책

들을 보내드릴게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하세요.

아빠, 아빠의 기도와 도움으로 저희는 언일 교회에서 정말 멋진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어요.

209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새벽기도회, 수요야간예배 등의 새로운 부흥집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모든 축복이 아빠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졌다고 확신해요.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학교는 9월 1일에 개학해요. 이제 마지막 학기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9월 1일에서 4일까지는 등록을 해야 해요.

곧 등록금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영어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못했던 거 같아요. 다른 예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자주 성경을 읽도록 노력할게요.

아빠의 사랑과 도움에 감사드려요. 엄마와 마이클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또 편지 할게요

사랑을 담아, 아빠의 딸 윤자 드림

PAGE 9

사랑하는 은자야

네 편지를 받으니 정말 기쁘다. 그리고 네가 한 일들에 대해 모두 예기해주어서 고맙구나.

학비를 더 일찍 보내지 못해 미안하다. 그래도 어쨌든 얼흘 전에 보냈어.

그걸 내가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전에는 그걸 너에게 보내는 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 (네 말은, 일본에서 보내는데 말이야)

네 학비를 거의 못 보낼 뻔했어. 우리 관계 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단다.

그 돈이 너의 생활비라면 아무 것도 보낼 수 없었을 거라느구나.

하지만 마침내 내가 최대 100달러까지 보낼 수 있도록 허가 해 주었어.

나는 8월 28일에 책을 받았단다.

내게 보내주려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네가 한 모든 수고 정말 고맙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지만 그것들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좋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있어.

그 책들은 경건한 목사님과 성경 교사에 의해 씌어진 것이야.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

9월 14일이나 16일에 여기서 그 책들을 보낼게. 그러면 제 때에 네가 그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을거야.

기도하고 있어. 네가 너의 마지막 학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고국받아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가득 담아 아빠가

PAGE 23

1971년 9월 4일, 서울에서

사랑하는 아빠&엄마께

가을의 향기로 가득한 이렇게 멋진 계절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려요.

이 좋은 가을에 엄마, 사랑스런 마이클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구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큰 아빠의 사랑과 도움 때문에 저는 늘 행복해요.

아빠! 아빠를 위해 보내 드린 책 2권 받으셨나요? 궁금해요.

아빠, 제 교우비로 100달러를 흔쾌히 보내주신 것에 대해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이제 등록하는데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답니다.

8월 30일에 우체국에서 돈을 받아서 정말 기뻐요.

아빠 아시다시피, 저는 내년이면 신학교를 졸업해야 하니까 이제 단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를 위해, 제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지금은 편지에 좋지 않은 학업 성적표를 동봉해 드리지만 이번 학기에는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할게요.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편지할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아빠의 딸이 씩니다.

PAGE 24

1971년 9월 25일

사랑하는 아빠

가을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많은 사람들이 이 계절 속에서 한희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네요.

제게 보내주신 학비와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뻐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했어요. 왜냐하면 아빠의 편지에서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게 학비를 보내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아빠를 귀찮게 하네요.

엄마와 제 동생 마이클은 어떻게 지내나요?

집에 있는 가족 모두가 너무나 그리워요.

아빠, 저는 종종 제게 아주 인상 깊어 남아있는 작년 9월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아빠를 알고 나서 처음으로 아빠를 만난 때잖아요.

아빠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때. 사진을 찍고, 고아원, 캠페션 사무실, 백화점, 경복궁을 방문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저는 불평이 없답니다.

아빠와 연락을 주고 받던 때부터, 아빠는 제가 우울하고 외로울 때마다 기쁨과 용기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가을이 최고의 계절이라지만 저는 가을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푸르던 잎은 고엽이 되어 떨어지고, 곤충들이 죽는 그런 얘기가 가득하니까요.

저는 삶의 환희와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빠는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온 세상이 희망으로 가득찬 봄이 좋아요.

아빠! 아빠에게 돈 얘기를 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해요.

저의 무례를 용서해주세요.

아빠, 제 성적표 받으셨어요? 아직도 성적이 많이 부족해서 부끄러워요.

아빠! 9월 24일에 성경 도서들을 다시 받았어요.

아빠가 급하게 책을 읽으셨을까봐 마음이 안 좋아요.

아빠가 시간에 쫓겨 잘 읽을 수 없으셨을 것 같아 죄송하더라도요.

아빠의 감사의 마음은 영락교회 목사님께 잘 전해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빠, 오는 10월 3일(일요일)은 음력으로 8월 15일, 보름달을 볼 수 있는 날로 한국 고유의 명절이에요.

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가요. 추수감사기과 축제와 수확 기념행사가 이 시간을 장식한답니다.

우리도 기숙사에서 좋은 시간을 가질 거예요. 또, 10월 15일에는 학교 졸업여행을 가요.

설악산으로 가서 거기서 4일을 머무를 거예요.

아빠, 엄마, 마이클 모두 너무 그리워요. 아마도 언젠가는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라도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 기숙사 사감님은 한국 교회 전도사로, 준 양은 1년 동안 몬테소리 보육학교에 다니기 위해 둘 다 일본으로 가요.

보육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저렴하거든요.

보육 과정을 공부하는 게 일본에서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기숙사 사감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 저도 보육과정에 관심이 있어요.

PAGE 10

사랑하는 은자야

너의 반가운 편지를 받고 내가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속에서 보살핌을 받아 잘 지내다는 걸 알게 되니 정말 행복하구나.

너의 학교 성적이 아주 좋아서 그걸 보고는 무척 기뻐한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 언제나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면에서 아주 잘 자라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는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의 일에 너를 사용하심이 행복하기 그지없다.

변함없이 주를 믿고 따르면 주가 너를 인도해 주실거야.

마이클은 이제 일본말을 아주 잘 한다. 그리고 이제는 전보다 영어에도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영어로는 아주 가끔 말하지만 내가 그 아이에게 영어로 말하는 것은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성서강해” 보내 준 것,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

그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선별해서 내가 큰 소리로 그 부분을 읽어 테이프에 녹음해 두었어.

이제는 그 테이프 전보다 더 여유있게 들으며 내용을 공부할 수 있거든.

앞으로는 정말 바쁜 강의 스케줄이 있긴 하지만, 내 노트의 일부분을 적어 네게 보내주려고 해.

아마도 네가 그걸 이해할 수는 있을거야.

아빠가

PAGE 26-27

1971년 11월 8일 서울에서

사랑하는 아빠

겨울이 가까이 오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도 더 가까이 다가옴을 느껴요.

저는 매일매일 가치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아빠에게서 온 반가운 편지를 받고는 정말 행복해졌어요.

제가 오랫동안 편지 쓰지 못했던 건 죄송했지만 말이에요.

언제나 아빠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한국은 겨울이 찾아 왔고 나뭇가지의 잎들은 모두 대지 위로 떨어졌어요.

일본과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가족 - 엄마, 마이클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시길 바래요. 저도 잘 지내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큰 아빠의 따뜻한 사랑과 도움이 있으니 저는 너무 행복하죠.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아빠의 생일을 축하하는 카드를 보내요.

그리고 아빠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뻐요.

마이클이 일본어를 아주 잘 한다면요? 그리고 아빠가 영어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 이해할 수 있나니 정말 마이클이 부러워요. 저는 영어를 아주 잘 하지도 못하고 일본어는 하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이클이 정말 많이 보고싶네요.

아빠, 설악산과 동해 바다로 10월 5일에서 8일까지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답니다. 저는 산과 바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그 중 몇 장은 보내드릴게요.

아빠, 아빠도 아시다시피 4개월 뒤에는 이 신학교를 졸업해야만 해요.

지금으 교회학교 예배도 섬기고, 졸업 논문도 쓰고, 공부도 해야 해서 정말 바빠요.

그래서 때로는 편지를 쓰지 못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빠, 2주 뒤에는 우리 모두 모여 추수감사절을 축하할 거예요. 연일 교회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저도 아빠와 가족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 저는 아빠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성경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세요.

특별히, 저는 "성서강해" 그 책에 관해서 듣고 싶어요.

엄마와 마이클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또 편지할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빠의 가정에 가득하길 바라며

당신의 사랑스러운 딸, 은자

1971년 12월 20일 서울에서

사랑하는 아빠!

오늘 정말 추운 날이에요. 게다가 여기 서울은 날이 갈수록 훨씬 더 추워지고 있어요.

아빠!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가지만 가족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러시길 바라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빠의 한없는 사랑과 도움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빠!

"시간이 쏠살같이 지나가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또 한 해가 제트기 날아가듯 급세 지나가 버렸네요.

다섯 되던 또 벌써 크리스마스예요. 저는 서둘러 소원을 빌어요.

아빠와 가족 모두가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과 행복을 가득 누리시길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족 모두를 지켜주시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편지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빠에게 도착하면 좋겠어요. 이 편지가 아빠를 잘 찾아내서 아빠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좋겠거든요.

비록 저는 이 행복한 연말에 아빠와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저는 아빠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최근에는 무얼 하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더 빨리 편지를 써야 하는데, 제가 너무 바빠요.

11월 30일 까지 졸업논문 주제를 보고해야 했거든요.

네 졸업 논문 주제는 " 한국 기독교 교육의 역사"예요. 그리고 12월 3일에서 8일에 시험이 있었어요.

이로써 저는 우리 신학대학의 모든 공부를 마쳤답니다.

그리고 지난 주, 12월 13일에서 15일에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제 기독교 교육학과 친구들과 함께요.

이제 저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연일교회 교회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는 또 무척 바빠요.

아빠! 곧바로 편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아빠의 소식도 궁금하고 아빠,엄마 그리고 마이클도 정말 많이 보고싶어요.

저는 저를 향한 아빠의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아빠와 가족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주세요.

저는 산책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사랑하는 아빠! 한해가 저물어 갈수록 그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고, 아빠가 보여주신 따뜻한 사랑이 앞으로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편지 할게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에도 아빠에게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아빠의 사랑하는 딸 은자 드림

사랑하는 딸, 은자에게

오랜 시간 편지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이번 겨울을 어떻게 보냈니?

한국은 이례적으로 이번 겨울이 따뜻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었어.

여기 일본도 꽤 따뜻했어.

너의 지난 학기 성적표를 받고는 네가 늘 성적을 아주 잘 받은 것에 감동했단다.

나는 늘 나의 크나큰 기쁨이 되는 나의 딸이 자랑스럽다.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되었구나.

너의 편지를 읽고 이해하기로는 졸업식이 2월 24일 영락교회에서 하는거지?

그 시간이 너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안다

그날 사진을 내게도 보내주겠니?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시고 너의 길을 명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짧은 시간 동안 네 앞에 놓인 시련에 네게 능력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단다.

졸업 후에는 무엇을 할지도 내게 말해주렴

이제 시간을 더 낼 수 있어서, 성경에서 찾아낸 몇 가지를 네게 적어 보내주려고 한단다.

그건 분명 네게 도움이 될거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모든 것을 보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거든.

곧 또 편지할게

사랑을 가득담아, 아빠가

PAGE 30-33

1972년 2월 7일 서울에서

아빠!

이 곳에 몇일 동안 손백의 손님이 찾아와 얼마나 사랑스런 날들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아름다워졌어요.

따뜻한 날들은 계속 되서, 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에게서 편지를 받으니 정말 행복했구요.

아빠에게 그 편지를 받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너무 반가워서 아빠의 편지를 들고는 껌을 씹었습니다.

아빠이기를 고대하고 있다가 아빠가 쓴 편지를 받게 된 거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아빠와 함께 하심을 אני 다행이죠.

아빠와 엄마, 마이클까지 모두 잘 지내고 계신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마이클은 훨씬 많이 자랐을 테고, 영어와 일본어 모두 아주 잘 사용해 말할 것 같구요.

엄마와 아빠 앞에서 멋진 매너를 보이며 놀 것 같아요.

사랑스럽게 노는 마이클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마다, 저는 사랑하는 내 동생이 늘 그리웁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마이클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이 오래진 않겠지요?

아빠! 지난 편지에는 실수가 너무 많아 죄송했어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아빠의 자애로움을 기대할게요.

존경하는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주신 \$10,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용기를 잃지 않고 다만 견디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종이 되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아빠! 2주 후에 아빠가 여기에 오셔서 제 졸업식을 함께 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비록 아빠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는 제 모든 영광의 손간을 전해 드릴게요.

아빠의 지원과 도움 없이, 그리고 아빠의 기도 없이는 저는 졸업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격려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요.

어떤 말로도 이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직 감사뿐입니다.

제 생각에 아빠에게 은혜를 갚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데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이번 겨울, 제 마음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무언가를 명확하게 생각하는 게 어려웠어요. 어떤 길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관찮은 것일까요?

무엇이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빠는 상상조차 못하실 거예요.

아직도 제 생각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제 일이 되는 곳을 선택했어요.

저를 아껴주시는 주선에 교수님께서 많은 기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저를 불러 교육 전도사로 고용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연일교회에서-아이들도, 목사님도- 계속 그곳에 남아있어 주기를 얻어서, 떠날 수 없었어요.

졸업 후, 3월이 되면 교회에서 저에게 40\$를 줄 거예요.

부자 교회에서 저에게 와달라고도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하는 이 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예요

아빠, 졸업 후에 무얼 할 거냐고 물어보셨죠?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내가 태어난 조국을 위해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교육학 대학원 과정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2년을 더 공부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답니다.

정말 공부하고 싶고, 충분한 시간도 있지만 재정적인 면이 걱정되거든요.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의 조언이 듣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에게 절대 어려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40\$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냥 아빠의 조언이 필요할 뿐이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격려가 필요할 뿐입니다.

아빠! 아빠 편지를 통해 성경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또 아빠의 편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빠! 부탁 하나만 들어 주실래요?

제가 친구에게서 "Frank Charles Thompson Bible"이란 책을 빌렸어요.

저는 그 성경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책을 살 수 없어서 아빠에게 부탁드려요.

아빠를 많이 불편하게 해드리다는 걸 알지만, 만약에 아빠가 그 책 [Frank Charles Thompson. DD. PHD.

Chain Reference Bible]을 구하실 수 있다면, 제게 보내주세요.

그건 제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성경을 갖고 싶어요.

아빠! 졸업식 시작하면 사진 찍어 보내드릴게요.

비록 부담되는 긴 편지가 돼서 어쩌면 아빠를 성가시게 할지도 모른다 걱정이 되긴 하지만요.

저의 부족함을 너그러이 봐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빠 가족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라며

아빠의 사랑하는 딸 드림

PAGE 34-35

1972년 3월 30일 서울에서

아빠, 엄마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이클에게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봄의 계절이 되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오랜 시간동안 편지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지난 편지를 보내 드리고 나서 무척이나 바빠어요.

자료를 아껴주시는 주선에 교수님과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저를 계속해서 크리스천 교육 전도사로 고용하고 싶어해서 연일 교회를 떠나야만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제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의 이름은 호암장로교회예요.

저는 많은 걸 배우고 있어서 정말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호암교회에 있습니다.

아빠. 저는 마태복음 25장 23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아빠, 저는 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매우 행복해지죠.

2월 7일 자료 보내 드린 편지는 받아보셨나요? 아빠가 정말 많이 보고싶어요.

아빠의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매일 아빠의 사진을 보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제 졸업식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건강 잘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빠의 사랑스런 딸, 윤자 드림

PAGE 12

사랑하는 윤자야

너무 오래동안 편지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 어머니가 갑자기 너무 편찮아지셔서 거의 죽음 가까이까지 갔었다.

지금은 괜찮아지셔서 집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심각한 상태셨다.

병원에 계신 동안 어머니 몸 여러 군데에 암(악성 종양)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한 번의 수술을 받으셨어.

종양 하나가 두 개의 척추뼈를 무너뜨려서 그것들이 서로 엉겨 붙게 되었지.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거의 마비 상태가 되셨었다.

지금은 치료를 받고 계시고, 우리는 어머니가 조금 더 사시길 기대하고 있어.

네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아는데도 네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졸업은 어떤 끝마침의 날이라기 보다 오히려 시작을 위한 날이지.

나는 정말 기뻐. 네가 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네가 있기를 원하는 그 곳을 네가 선택했다는 게 말이다.

PAGE 36-38

1972년 6월 1일 서울에서

존경하는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버지의 편지와 아버지가 친절하게 보내주신 마이클의 사진을 받고 정말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아버지의 진심어린 사랑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삶의 모든 것이 근사해요.

아빠! 아버님 어머니의 건강이 지금까지도 좋지 않다고 하시니 매우 걱정이네요.

어머님의 건강이 좋아지시길 반드시 기도할게요.

지금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아빠, 지금 마이클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마이클 정말 많이 컸어요.

저는 매일 마이클의 사진을 봐요. 가까이 있다면 꼭 껴안아 줬을 거예요.

아빠와 마이클이 정말 보고싶어요.

3월 30일 자로 보내 드린 편지와 사진을 받아보셨어요? 아버지께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 아버로부터 Thompson's Chain Reference 성경에 대해 듣게 되니 정말 좋아요.

비록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테지만 노력할게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빠, 꽤 오랜시간 편지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저는 후암교회 교육부에서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저는 대략 150여명의 새로운 아이들을 만났어요.

이제 교회 학교아이들은 400명이나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하지만 또 너무 바쁘기도 하죠.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비록 그 책임을 모두 잘 감당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엔 힘이 없지만 말이에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기도와 충고는 언제나 저를 돕거든요.

졸업 후, 3월에는 후암교회에서 \$60를 받게 될 거 같아요. 저는 가난한 하나님의 종들을 돕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께 최근 생활에 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나 후암 교회에 가서 기도할 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후암교회 교회학교에서 일을 하죠.

그리고 영어 회화 학원에서 오후 6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영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합니다.

언젠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면, 제 혼자 힘으로 아버지께 영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여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고 생각 하면 마음이 움직여요.

편지와 함께 제 사진을 동봉할게요. 아버지 목소리도 듣고 싶고 가족들 사진도 보고 싶어요.

아빠, 또 편지할게요. 엄마와 마이클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아빠가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아빠의 사랑하는 딸, 은자 드림

PAGE 39-41

1972년 8월 5일 서울에서

사랑하는 아빠, 엄마께

여기 한국은 밤낮으로 날씨가 정말 뜨겁게 변하고 있어요.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요.

저는 우리의 본향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짧은 시간에 대해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모든 것이 좋아졌기를 바래요.

특히, 아빠 어머니의 결과를 듣고는 걱정했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제 일도 아주 잘 해내고 있어요.

왜 아빠에게서 너무 오래동안 소식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만 빼면 다 좋아요.

제가 아빠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베에서 보내시는 여름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 하나님에 말씀에 대해서도 제게 얘기해 주세요.

아빠의 이야기가 정말 듣고싶거든요.

엄마는 요즘 무슨 일을 하시나요?

마이클은 전보다 더 자라났죠?

그럴 거라 생각해요

가족 모두 너무 그리워요.

아빠 제가 보내드린 편지와 사진 받으셨어요?

저는 3개월 전에 아빠의 편지를 받았던 때 이후의 아빠의 생활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빠의 사랑이 필요해요.

제 삶을 위한 아빠의 조언이 필요해요.

아빠, 7개월 전에 제가 " 저는 언일교회에 남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있는 것 같아요."라고 했던 말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제 생각일 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언일 교회를 놔두고 호암교회에 와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했거든요.

저를 이해해주세요

호암교회는 언일교회보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더 많은 어린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여름성경학교를 열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아빠는 제게 최고의 선생님이거든요.

아빠, 아빠에게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고베에 계시다면 제게 곧 편지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족 모두에게 임하길 바라며

아빠의 딸, 은자 드림

PAGE 13

1972년 8월 21일

사랑하는 운자에게

너무 오랫동안 편지쓰기를 게을리 해서 미안하구나. 용서해다오.

물론 너를 잊고 있었던 건 아니야.

자주 너를 생각했지

그리고 네가 지금도 아주 바쁠 거라는 걸 알고 있단다.

네 말이 맞아.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 말이다.

나는 요 몇 달 잘 지내지 못했어. 일반적으로는 말이야.

지난 2달 동안 네 오른 팔에 통증과 무감각 (번갈아 가며 일어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거든.

그래서 잠도 잘 잘 수 없었단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완전히 나아지진 않았어.

나는 곧 일본을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음 달에 떠날 계획을 세웠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이 곳에 머물게 만드시는구나.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많이 적어주지 못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확실히 할거야.

새로운 스케줄을 시작하면서 너에게 무언가를 적어 줄 시간을 분명히 만들어 놓을 거거든.

내가 적어주는 것의 많은 부분이 네가 성경 안에서 실제로 따를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줄 수 있을거야.

네가 영어로 적혀 있는 그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아직도 영어 공부 잘 하고 있지?

아직도 '성경으로 돌아가라'를 칭찬하고 있니?

Thomspson Chain Refence 성경은 벌써 받았니?

내가 미국에서 바로 네게 보내달라고 여동생에게 부탁했거든.

그걸 받으면 내게 말해주려무나.

나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시고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계시단다.

하지만 아직 혈액과 골수 안에 암세포가 있어서 어머니의 몸속 어느 뼈에서든지 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구나.

어머니는 지금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화학치료를 받고 계시.

마이클은 잘 지내고 정말 많이 자랐단다.

곧 그 아이의 사진을 보내줄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그의 뜻대로 너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한다.

내 사랑스러운 딸에게 사랑과 키스를 보내며

아빠가

PAGE 14

1972년 9월

사랑하는 운자에게

일본에 태풍이 지나간 후 낮과 밤이 꽤 쌀쌀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거의 다 나아났다.

아주 가끔 통증이 있을 뿐이야.

요 근래 내 사랑스러운 딸을 많이 생각했다.

지난 번 너를 봤던 이래로 정말 많은 시기가 지나지.

그래서 네가 많이 그리워.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나는 매일 네게 이야기를 해 줄 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게 말해 줄 다양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은 텐데 말이다.

너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몇가지는 있는데, 네가 그걸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겠니?

내가 너에게 주었던 공책에 맞게 내가 종이에 그걸 적어야 할까?

아니면 테잎에 녹음을 해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우선 개요를 적고 개요부터 말하고 나서 카세트 테잎에 모두 녹음해야 할까?

어떤 게 좋을지 말해주렴.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특별한 질문이 있다면 나에게 질문해 주겠니?

우선 네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말해주면 좋겠다.

'공부'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깊이 파고드는 것이야.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과 비교하는 것, 이것은 나에게 있어 성경이 스스로 풀이해 준다는 것을 의미해.

(고린도 전서 2장 13절)

성경은 인간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지. 오히려 거부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씌어진 것이니까.

내가 전에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성경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 구절의 끝 부분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굳게 쫓게라 하신 말씀이 있어.

그래서 나는 네게 보내는 첫번째 글에서 네가 성경을 공부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가지 요점을 적으려고 한다.

그것들은 네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란다.

어떤 사람이 한 고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단의 전통적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런 교리와 해석 중에 많은 부분이 거짓이고 다른 성경의 가르침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지.

매일 성경을 조사(연구)하여 그들이 듣는 것이 참된 것인지 증명하는 것은 각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란다 (사도행전 17:11)

마이클과 엄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단다.

아빠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사랑을 담아, 아빠가

PAGE 42

1972년 9월 28일 한국, 서울에서

사랑하는 아빠!

가을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절속에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 같네요.

아빠의 편지를 받아서 정말 행복했지만 아빠가 사고로 다쳐셨다는 걸 알고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건 제게 충격적이었지만,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속히 나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또 아빠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 요즘 아빠 오른팔은 어떤가요?

저는 아빠의 편지에서 깊은 사랑과 따뜻함을 발견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에게 감사해 했어요.

저는 아빠가 저를 잊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아빠! 마이클이 잘 지내고 많이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클이 너무나도 보고싶어요.

아빠, 저는 매우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영어공부도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공부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일로 너무 바쁘거든요.

PAGE 15

사랑하는 은자에게

나는 오로지 기쁨과 관심을 갖고 네게서 온 행복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단다.

특히 12월에 있을 너의 결혼식에 대해 듣게 되다니 정말 기쁘구나.

네가 결혼하고 싶어하니 행복하다.

나에게는 갑작스런 소식이지만 네가 그 청년을 10년 동안 알고 지내왔다고 말하니깐 말이야.

중요한 건 결혼이 하나님의 뜻임이 확실하다는 거지.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비추어 생각해야 해. (롬 14:10/고후5:10)

아마 이 문제는 이미 너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을거야. _ 그런 경우, 관참지.

그리고 나는 이 생에서의 짧은 시간동안 네가 너의 배우자와 행복하게 지낼 거라는 걸 확신해.

너의 결혼식이 있는 그곳에 너무 가고 싶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구나.

내가 가르치는 학교에 교사가 부족해서, 지금도 너무 벅거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단다.

그래서 한동안은 시간을 낼 수가 없구나.

너의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내게 보내주렴.

눅음기 분실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거라. 나는 걱정 안 한다.

다른 눅음기를 보내주도록 노력할게. 나는 네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라"방송을 듣고, 그걸 이해하길 바래.

방송을 눅음해서 그걸 다시 들으면 네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거든.

그런데 난 네가 아직 'The Thompson Chain' 참고 성경을 받지 못한 게 걱정이야

나는 그것이 지금 줌은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내 여동생에게 그걸 호암교회 주소로 보내라고 했어.

조금 더 기다려 보겠지만, 곧 받게 된다면 내게 말해주렴.

며칠 후에 내가 한 질문에 대한 답장을 보내도록 하마.

나는 이 편지를 보내는 걸 지체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 지금도 보내고, 답변과 성경공부에 대한 더 많은 것은 며칠 안에 또 보내도록 하마.

물론 답은 성경에서 나와야 하지.

우리는 오직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진실만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식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두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축복이 네게 임하기를 기도한다.

사랑을 담아, 아빠가

사랑하는 은자에게

결혼식 사진 보내주어 정말 고맙다. 모두들 멋지던 걸. 특별히 너는 정말 아름답더구나.

오랜 시간 편지하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나는 종종 너에 대해 생각하다가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진다.

따스한 봄 기운에 다시 피어나는 싱그러운 꽃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

마이클은 정말 많이 자랐어. 이제 겨우 4살이지만 이번 달에 마이클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거란다.

산드라 마리코는 이제 5개월 반이 되었어. 그 아이도 잘 자라고 있어.

드디어 그 아이의 사진을 몇 장 찍었지. 한장 네게 보내줄게. 하지만 그 사진은 2개월 전에 찍은거야.

은자야, 성경말씀에 관한 주제를 적어 보내지 못해 미안하구나.

성경 주제노트를 적기 위해 시간을 좀 더 내 보도록 노력할게. 너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구나.

아직 톱스 성경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서점을 뒤져보니 오래 전에 미국에 주문해 놓아 재고를 보유한 서점을 하나 찾았어.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일 우편으로 보내려고 한단다. 그러니 받고 나면 알려주렴.

나는 다른 주제에 대한 소재지도 보내주려고 해. 그것들이 많이 유용할거야. _만약 네가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네게 보낼 다른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도 있단다.

잘 지내렴.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담아, 아빠가

PAGE 43

1973년 11월 3일

사랑하는 아빠,

한국의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으로 물든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있습니다.

산들도 웃을 갈아입었고, 우리는 가을의 상쾌한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물의 심오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빠! 아빠와 엄마 그리고 마이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가족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잘 지내요.

편지를 너무 오랫동안 쓰지 못해서 별 낫이 없어요.

저는 마이클과 산드라가 잘 지내길 소망해요. 그리고 많이 자랐을 것 같아요.

귀여운 산드라가 아빠 앞에서 사랑스럽게 노는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그들이 부럽네요

저는 아빠를 생각하면서 아빠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너무 그리워서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제 안에서 자꾸만 커져가요.

하지만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더 빨리 편지하지 못했답니다.

이제야 그간 3개월 동안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을 돕는 일 외에도 집과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느라 너무 바빠어요.

남편은 1973년 8월 17일에 맹장염 수술을 받았습니니다.

9월 13일은 또 제게 잊을 수 없는 날이었구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의 선물을 받았을 때 저 또한 그 분에 의해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은혜와 은성이란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그 아이들은 자궁 속에 있을 때 자연분만을 할 정도로 강했지만 제가 그 아이들을 낳기에는 너무 약했어요.

아이들을 출산하기 위해 제왕 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은 성공적이었는데도 곧 '자간증'으로 고통을 겪었어요.

자간증 때문에 두 차례나 기절을 해서 의사를 너무 놀라게 했거든요.

교회의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저를 위해 돈을 마련해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조금 회복해서 아빠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셔서 제 삶을 구해주셨으니 그 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남편의 신학 공부를 돕고, 두 아이를 키우고 교회에서 일해야 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해낼 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29일에 아이들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아빠는 할아버지가 되셨네요.

비록,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아빠에게 곧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그럼 이만, 사랑을 담아 아빠께

아빠의 딸, 은자 드림

PAGE 1b

사랑하는 온자에게

내 생일에 보내 준 선물과 편지 정말 고맙구나.

그 것은 우리 모두를 즐겁게 만들어 주었어.

네가 편지에 적어준 소식은 나를 매우 놀라게 했어.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강하고 훌륭한 두 아기를 주셨다니 정말 기쁘다.

지금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단다. 네가 사진을 보내주면 그 아이들을 볼 수 있을 테니 말이야.

하지만 난 네가 그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많이 아팠단다.

너희 가족이 갑작스럽게 겪은 많은 시련을 알고나서 슬펐지만, 한편 전능한 하나님은 없애지지 않는다는 너의 믿음과 신뢰의 고백을 듣고 아주 기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할 수 없지.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분의 방법이 완전하며,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은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놓으심을 믿어야 해.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려다.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마.

하나님은 너에게 책임을 더하셨지만, 그는 분명히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훨씬 큰 은혜를 주실거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너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것이지.

사랑을 담아, 아버가

PAGE 4b

1984년 1월 2일

사랑하는 아빠&엄마

1983년 12월20일에 아빠에게서 온 멋진 카드와 사진을 받고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신다는 소식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빠의 편지에서 찾을 수 있는 깊은 사랑과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빠의 사랑과 친절함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것을 절대 잊지 못해요.

너무 반가워서 아빠의 편지를 들고는 펄쩍 뛰었어요. 아바로부터 들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빠를 위한 제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아마, 아빠가 저를 기억해주시는 걸 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아빠와 마이클, 산드라의 멋진 사진을 받아 정말 기뻐요. 마이클과 산드라 마리코는 정말 많이 자랐네요.

너무 귀엽고, 마이클은 정말 놀랍도록 크게 자라서 정말 많이 보고싶어요. 가족 모두가 정말이지 기쁘네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편지하지 못해 죄송해요(10년이 지나네요)

아빠를 간과한 건 아니에요. 언제나 아빠를 생각했죠.

늘 아빠를 걱정했구요. 왜냐하면 아빠는 나를 도우셨고, 사랑해주셨고, 나를 회복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10년 동안 그렇게 잘 지내지는 못했어요. 음, 제 말은 대체로 그랬다는 거예요.

먼저 저는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야 했거든요.

제 남편이 신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난처함을 겪어야 했어요.

1973년부터 1975년까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해서 너무 피곤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동생을 돌봤어요. 둘 다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어요. (빌립보서 4:11-13)

둘째로, 저는 교회 예배로 너무 바빠서 영어와 성경공부를 많이 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아시안 센터와 D. Min 과정에서 신학교부를 하는 남편을 돕는 것 이외에도 집안일과 교회를 위한 많은 일들을 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위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인 300명과 400명의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러 오는 강서중앙장로교회를 섬겼어요(1976년에서 1983년까지 8년동안). 강서중앙 장로교회는 서울 진입부에 위치해 있어요. 김포공항에서 택시로 겨우 8분 걸린답니다.

사랑하는 아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영어 공부도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이야기 나누고 싶거든요.

저는 줄곧 아빠를 찾으려 노력했어요. 한국 컴패션 사무실에 아빠 주소를 물어보기도 했구요.

저는 아빠가 고베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B. 해밀턴 선교사님께도 물어보았죠.

그녀는 B.C.M, 교육국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아빠 B. 해밀턴 선교사님을 만나셨나요?

아니면 선교사님의 전화를 받으셨나요?

제가 아빠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녀는 1월에 서울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열 거랍니다.(B.C.M. 세미나/1월 23~28일)

존경하는 아빠!

아빠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쯤 아빠가 한국에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올 수 있으시겠어요?

언제 시간이 되실까요?

아빠가 한국에 방문하시도록 도와드릴까요?

남편이 아빠의 여행경비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아빠&엄마!

편지에 실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양해해주세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빠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적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주세요.

아빠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아빠와 온 가족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빠, 마른 김을 보냅니다.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딸, 은자 드림

※P.S. B. 해밀턴 선교사님 주소

P.O.BOX 18. Higashi Nada Ku Kobe 658 Japan

Tel. 662 (0798) 72- 8075

선교사님은 12월 2일에서 14일까지 한국에 머무시다 일본으로 돌아가셨어요.

PAGE 48

1984년 9월 10일 서울에서

사랑하는 아빠!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이 오늘이예요.

추석, 추수감사의 날은 네 개의 가장 큰 명절 중의 하나랍니다.

쌀떡, 과일주, 새로 수확한 농작물로 각 가정마다 음식을 만들고 가족 모든 구성원이 제사를 지내려 조상의 묘를 방문해요.

추석명절 놀이로는, 여자아이들은 밝은 드레스(한복)를 입고 시소를 타고, 남자아이들은 씨름경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추석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니까요.

추석은 공휴일이어서 아빠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존경하는 아빠!

우리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빠와 가족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계절을 주삼에 감사하면서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에, 아빠&엄마도, 마이클도, 산드라 마리코도 다 잘 지내고 있죠?

그러기를 바래요.

오랜 시간 편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벌써 6개월이 지나네요.

너무너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PAGE 32

사랑하는 은자에게

1984년 12월과 1월, 2월까지 우리가 가졌던 고제에 대해 주님께 깊이 감사드렸어.

또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BCM과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께 감사드렸단다.

내가 2월 6일에 일본으로 돌아온 후, 급하게 2월 11일에 Hirt 씨께 편지를 썼어.

일본과 BCM 본사 간의 연락에는 약 2주가 소요 된단다.

나는 Hirt 씨에게 1973년에서 79년까지 서울로 보내진 모든 기록물을 요구했었어.

어제 Hirt 씨로부터 편지와 모든 재정 기록물을 받았단다.

사본을 준비하는 즉시 그 정보들의 복사본을 네게도 보내줄게.

BCM에 가입하기 원하는 11명의 새로운 멤버들을 위해 선고사 지원서를 준비하고 있어. 그것들을 이번주쯤 한국으로 보내줄게..

지난 달에 우리는 다음 교사 연수 세미나를 몇 주 뒤인 4월 초순에 갖자고 이야기 나눴어.

나는 새로운 사람들의 신청을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사역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단다.

다음 세미나의 목적은 새로운 신청자들이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야.

또, 나는 Hirt 씨께 BCM 한국 대표가 되어주는 것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묻기 위해 편지를 보냈어.

그의 답변은 현재 그룹으로 함께 일하는 사역의 형태를 계속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 즉, 장세종 형제가 설교를 이끌고 수재씨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체제로 말야.

그는 선고 사역의 감독관으로 BCM 인원을 지명하는 것은 BCM의 관행이 아니라고 말했단다.

그러니 너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중의 하나라는 말이지.

새로운 사람들이 BCM 가족이 되면 그들은 너와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 하고, 일하는 새로운 멤버가 되는 거란다.

나는 네가 Hirt 씨를 채용하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하는 다른 큰 부담감 없게 다행이라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사랑하는 온자에게

며칠 전 김진수 씨에게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단다.

네가 일본에 오고 싶어 한다고 내게 얘기해주었어.

우리 대화가 끝나면 그가 서울에 있는 네게 전화해 이 부분을 "보고"해 준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나는 그가 그 다음날 저녁에 나에게 전화를 주었을 때 다시 한번 놀랐단다.

그는 고베 시내에 있다고 말하며 내가 그를 만나기 위해 나와주길 원했어.

그가 30분은 나와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서둘러 고베 시내로 가서 그를 만났단다.

그와 이야기 나눈 시간이 정말 즐거웠다.

그는 그의 서울 방문과 그곳의 여러 교회에서 설교한 것에 대해 내게 이야기해 주었어.

나는 네가 일본을 방문하려면 여권과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 형식적인 절차에 대해 전혀 몰랐거든.

김진수씨가 나에게 얘기해 준 다음 그가 오사카에 있는 한인 교회의 이씨와 상의 후 그곳 교회에서 너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으로 해주겠다고 말해주더구나.

네가 일본을 관광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초청하는 것 같아.

그 다음 우리와 함께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다는데 그러면 그때 히로코, 마이클, 산드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구나.

김진수씨가 나에게 많은 친절을 보여주었어, 바쁘게도 나를 위해 30분 이상의 시간을 내 주었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그가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어

그가 식사비를 지불하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안심했다.

왜냐하면 그가 단지 30분만 시간을 낼 수 있는 줄 알고 서둘러 나가느라 돈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거든.

진수씨가 네가 9월이나 10월에 일본에 온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다시 너를 만날 수 있을 그 행복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단다.

아!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니...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안부를 전하며

아빠가

PAGE 49

1985년 7월 8일 서울에서

친애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편지를 받고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죠? 정말 잘 지내시길 바래요.

김진수씨의 전화로 깜짝 놀라셨다니 정말 죄송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와 이야기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본에 갈 수 없고, 제 대신 남편이 고베에 갈 수 있어요.

남편은 지금 미국에 있는데 8월에는 아버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고베에 가고 싶어해요.

남편은 8월 2일 금요일에, 일본항공(JAL-FLIGHT 722)을 타고 가서 오후 10시에 오사카 공항에 도착해요.

아버지가 만약 고베에 가실 수 있으시면 여기 서울로, 제게 편지 해 주시겠어요?

오사카 공항에 나오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아버지가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오사카에 나오실 수 없으시다면, 공항에서 아버지 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지도에 그려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장소에 갈 수 있도록, 택시 기사에게 보여 줄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남편은 아버지를 만나 몇일 동안 아버지와 지낼 것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집 근처의 호텔 싱글 룸을 8월 2일부터 몇일 간 예약해 주시겠어요?

그는 수요일(8월 7일)에 고베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돌보심과 완전함 안에서 아버지를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딸, 윤자 드림

1985년 8월 31일

사랑하는 은자에게

요즘날 전화로 몇 분간이나마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

네 목소리는 15년 전에 내가 기억하는, 서울에서 너와 함께 있었을 때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더구나.

물론 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던 목소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너도 아마 기억하겠지만 내가 테잎에 녹음한 몇 곡을 네가 불러주었다.

나는 너의 아들이 너를 닮아 좋은 노래 목소리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뻐.

전화로 함께 이야기할 나는 후에 내 메시지를 너에게 전해주는 친절한 도움 주신 문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려주렴.

나는 그것에 대한 너의 답변을 기다리고있다.

그리고 많은 멋진 선물들이 들어있는 네게서 온 큰 소포를 받고는 얼마나 놀라고 기뻐는지.

네가 가진 사랑의 마음에 정말 많이 감사했었다.

히로코도 마이클과 산드라도 감사를 전해달라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너를 생각나게 할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와 너의 가족과 항상 함께 하기를 바라며

사랑을 담아, 아빠 Bill이 씀

1985년 12월 26일

존경하는 아빠!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아빠가 보내주신 카드는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 주었어요.

또 오늘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 우리 교회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아빠도 15년 전에 제 친구를 만나셨어요. 그녀는 나와 함께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1년 동안 콜럼비아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아빠사진을 보면서 감사한 나의 아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아빠! 저는 곧 아빠를 만나기를 희망해요.

헤밀턴 양이 12월 10일에서 12일에 한국에 방문했어요.

저희 집에 머물면서 한국의 BCM을 위해 일했습니다.

제 남편이 모든 방면에서 그녀를 안내했고, 우리는 한국 BCM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 BCM성경 어머니 클럽을 지도하고 있어요. 매번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아빠, 여동생 분이 다치셨다니,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아빠를 위로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에게 보내주신 톱스 성경- 나를 위해 그 성경을 사려셨던 그녀에게 이제 감사의 말을 전할 수가 없네요.

제 영어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아빠와 오랫동안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제 영어 실력은 천천히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해밀턴 양과 이야기 나누면서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아빠를 위해 방 하나에 침대를 준비했어요. 5월에 만나기를 바라면서요.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담아, 아빠의 딸 윤자 드림

사랑하는 윤자에게

멋진 편지 고맙다.

네게 온 편지를 읽고 아주 행복했다.

더 일찍 편지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먼저, 내가 이번 겨울에 많이 아팠어. 장기간의 감기와 만성 기관지염으로 고생했다.

마침내 건강하게 회복되었구.

기도해줘서 고맙구나

나는 너의 최근 사진과 너의 아들, 딸들의 사진을 보고 정말 많이 행복했다.

너의 보살핌을 받고 멋지게 잘 자란 너의 딸들을 볼 수 있었어.

나는 네가 두 딸을 각각 한 팔에 안고 있는 아기 때 사진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편지 하지 못해 미안하다.

그 동안 나는 너를 잊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너를 모른 채 할 의도도 아니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왔어 — 사실 다른 해에 두번의 다른 계기로 미국에 돌아왔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해줄게) 하지만 매번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지.

아무튼,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너의 주소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네가 다시 편지를 써주어 네 새로운 주소를 알게 되니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

나는 네 편지에 있는 말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

영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모양이구나.

마이클은 요즘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위해 매일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내년 3월이면 15살이 되고 중학교를 졸업할거야.

마이클은 들어가기 어려운 기술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해.

산드라는 학교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고. 그녀는 집에서 요리와 베이킹 돕는 것을 좋아한다.

나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번 봄에 계약이 만료될거라서 그 후에 다시 직장을 잃게 될거야.

한국에 있는 너를 정말 방문해 보고 싶구나.

나의 남편과 아이들도 만나고 나와 이야기하고도 싶구

여행 경비를 마련해 준다는 남편에게 정말 감사하다.

내가 언제 시간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지금은 말해줄 수가 없겠다.

내가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된다면 그때 말해줄게

하나님의 한 없는 축복이 너와 온 가족에게 가득하길 바라며

사랑을 담아, 아빠가

사랑하는 은자에게

너와 너의 사랑스런 가족은 잘 지내고 있니?

오랜 시간동안 편지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늘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편지를 써서 말해주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

지난 5월 미국에 처음 도착한 이후로 상황이 매우 안 좋았어.

그때부터 계속되는 통증이 있었거든.

직장(창자)에 통증이 있어서 앓을 수도 없었다. 참을 수 없는 허리 통증

잠을 많이 자지 못하고, 통증이 왼쪽 다리로 옮겨 가서 부분적으로 마비가 되니 잘 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여러가지 검사를 받으려 병원에 갔었어.

의사들이 통증 유발과는 관계 없는 게실증(탈장증상의 종류)에 걸렸다는 걸 찾아내더구나.

그래서 최근에 직장부위를 수술 했어. 그리고 검사를 위해 종양의 일부를 잘라냈었다_그게 암종이었어. (암 같은 것이 자라난 한 종류)

나는 방사선 치료와 화학치료를 받아야 할거야.

의사들이 몸의 다른 부분에 다른 암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다른 검사들을 할 거라느구나.

또 왜 통증의 연인을 알아내기 위해 골반과 척추 CT를 찍고, 전체 뼈 사진을 찍었어(팔에 방사성 물질을 주입한 후에)

아마 디스크일 것 같아. (회복을 위해서는 약간의 수술이 필요한 척추 추간판 디스크이거나 탈출된 추간판 디스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0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

어떻게든 나는 내가 있는 곳을 네게 알리고 싶었다_ 주소&전화번호

William Baker

4005 Nancy Dr, apt.5

Florissant MO. 63033 U.S.A.

(That's in Missouri state)

Phone 314-830-2335

사랑을 담아, 아빠가

50

PAGE 18

1989년 12월 16일

사랑하는 운자에게

네가 보낸 선물 상자가 너와 통화를 하고 난 며칠 후 도착했다.

좋은 것들을 많이 보내주어서 고맙구나. 내 방 온도가 바깥 온도와 거의 같은 추운 날 밤이었는데 전기 담요가 내 침대를 아주 포근하게 만들어주어서 아주 잘 잤다.(지난 밤은 2도였어)

비타민은 건강에 최고지! 일본에는 그런 것이 없어. 복용하고 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

치마와 스웨터는 히로코에게 완벽하게 어울리고 그녀에게 잘 맞아.

산드라와 마이클도 따뜻한 잠옷과 기타 다른 것들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전해달래.

그 아이들은 폴로버 셔츠를 정말 좋아해서 매일 그걸 입는다.

우리 집에 오는 것에 대해 전화로 이야기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담요에 붙여진 메모를 읽은 후 전화로 내가 말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

마이클은 지난 4월에 차를 팔았다. 딱 1년 동안만 사치를 즐길 수 있었던거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 이제 마이클은 대학 입학 시험 공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남은 5000달러를 오사카 예비학교 다니는데 썼다. (고베에는 그 코스가 없거든 — 1년 기차 요금으로 900달러)

지난 3월에는 입학하기 매우 어려운 오사카 의과 대학을 위한 시험을 봤어.

내년 3월에는 4군데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 오사카와 고베에서 더 멀리 떨어진 다른 3곳의 학교.

이 3곳 중 하나에 입학하게 된다면 마이클은 여기를 떠나 멀리서 살아야 할거야.

그리고 그 비용은 지나치게 높겠지 — 학교와 생활비로 한달에 거의 1000달러

나는 한국에 와서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려는 너의 제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나는 너의 관심과 나를 돕고자 하는 너의 바람을 알기에 정말 감사해하고 있어.

네 바람으로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네게 지워주게 될 추가 부담을 생각하고, 심중팔구 내가 어떻게든 한 달에 대략 300달러를 (한 달에 히로코와 산드라의 학비와 기본적인 필요로 1500달러) 더 벌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만약 내가 미국으로 가서 소프트웨어가 있는 컴퓨터를 사기 위해 어딘가에서 500달러를 벌 수 있다면, 내 생각에 이 모든 것을 위한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우리 가족은 너와 너의 사랑스런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을 위한 너의 중요한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어.

사랑과 고마움을 가득 담아, 아빠가

사랑하는 아빠께!

날씨는 많이 춥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계절이 한없이 기쁘기만 합니다.

아빠의 편지를 받으니 더욱 행복하구요.

하지만 아빠의 편지를 받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의 사랑을 받은 제가 아빠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네요.

저는 아빠의 생일이 11월 17일이라고 기억합니다.

가게에 갔었는데도, 아빠의 생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빠에게 생일카드조차 보내지 못한 저를 용서해주세요.

건강해지셔서 새로운 직업을 찾으셨다니 너무 행복해요.

아빠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너무 스케줄이 많아 한국을 방문하시는 계획이 방해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를 만나기로 하신 게 미루어지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했어요.

아빠!

지금 당장 아빠에게 달려가고 싶어요.

만약에 일본에 갈 수 있는 여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아빠를 만나러 갈게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빠를 만나러 갈거랍니다.

제가 얼마나 아빠를 보고싶어 하는지 생각조차 못 하실거예요.

저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기억조차 못하고 사진 한 장 본 적이 없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여태까지 저를 길러주신 아

빠가 있잖아요. 제가 아빠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 아빠!

저는 영원히 아빠를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자라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셨고, 그리고 아빠의 도움으로 저는 위로받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보니, 아빠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빠! 부디 저를 초대해 주세요. 일본에 가고 싶어요.

제 남편도 제 바람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언어라는 장벽이 있지만, 자애로운 아빠의 모습이 보고싶거든요.

모든 경비를 제가 지불할 거예요.

아빠! 부디 건강하시고, 엄마와 마이클, 산드라도 모두 평안하기를 바래요.

저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어요. 교회도 매일이 풍성하여 편안하구요.

제 꿈이 선교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제 남편을 강서구에 선교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결실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시작할 때는 우리 교회는 단지 우리 식구가 한데 모여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지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집의 거실을 이용했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포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것은 모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한 폴 트립으로부터 배운 것이예요.

저는 선교사역을 더 더 배우고 싶어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위해 공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알아요.

교회 건축이 끝났어요. 우리도 새로운 교회 사옥으로 이사했구요.

우리 교회는 아빠가 기억하실지도 모르는 영락교회 건물보다는 작아요.

우리 교회 부지는 총 320평인데 건평은 200평에 달합니다.

장년층은 500여명의 사람들이 있고, 청년은 60여명, 중등학생이 140명 정도, 초등생은 300명, 유치원생은 120명, 미취학 아이들이 5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111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미국 장로교와는 관계가 없어요.

가장 번성하고 있는 교회 연합회에 소속된 교회예요.

신학교도 가장 큰 곳이고요. 교회 수도, 성도 수도 어떤 다른 교단보다 많아요.

1956년까지는, 우리 교회는 장로교 영락교회와 같은 교리를 가르쳐 왔지만, 1957년에 영락교회보다 보수적인 교리를 체계화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더욱 발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제 믿음 또한 일관된 보수적 믿음이거든요.

이 교단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한 모임 중의 하나예요.

아빠!

해밀턴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아빠에게 예수님과 아빠의 생신을 기념하여 선물을 보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기에 모든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돈을 보내려고 은행에 갔었는데, 그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고요. 해외로 돈을 보내는 건 우리 나라를 떠나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만 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 것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답니다.

이 편지와 카드가 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는 걸 이해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사역을 위한 기부금을 모금해요.

그리고 두 곳에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CBS 방송국에 매달 라디오 선교사역을 위해 기부도 합니다.

세번째 주일 (12월 16일)에는 극동방송국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 상황을 비디오 테잎으로 녹화 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아빠가 계속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가족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은 성직자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어요. 올해 12월 14일이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내년엔 논문만 쓰면 끝이에요.

쌍둥이 딸들(은희, 은성) 5학년일, 아들 광천이는 1학년일 마칩니다.

은희는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고, 은성이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어요. 광천이는 노래를 아주 잘 합니다.

그 아이는 작년 10월에 추첨을 통해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노래 경연대회에서 300명 중에 은메달을 땀어요.

기도로 된 아들, 광천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바쁜 일들로 너무 피곤해요. 저는 늘 집안 일과 아이들을 위한 선교 사역으로 바쁘게 지내거든요.

그렇지만 일본을 방문할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초청장을 보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아빠가 정말 보고싶어요.

아빠를 곧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아빠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을 담아. 아빠의 딸, 은자 드림

사랑하는 은자에게

나는 너의 아이들과 가족 그리고 너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나와 너의 남편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역에 대한 소식을 읽고는 정말 행복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너의 모든 것을 위해 계속 기도할게.

일본에 온다는 게 사실이니?

내가 불편하지 않다면 물론 나는 네가 일본에 오기를 바라지.

아마 네게 여러 면에서 좋은 경험이 될거야.

나는 진짜 아버지가 없다는 너의 감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 나도 전혀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잠시 동안 나는 고아원과 같은 집에서 지냈지만 실제 고아원은 아니었지.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열하고 제멋대로였어.

그곳은 기독교인의 진정한 의미의 집이 아니었지.

어쨌든, 이제 너는 결혼을 했고, 남편과 (은진만 부분으로) 결합이 되었잖니.

너에게는 훌륭한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는 놀라운 삶이 있어.

언젠가(아마 곧 오겠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거야. 그때는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알 수 있게지.

내가 일본(오사카 공항)에 도착하는 날짜를 내게 말해주렴

드디어 집 주변에서 밤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

그곳은 아주 비싸지도 않아(하루에 5000엔인데 조식과 저녁이 포함되어있었다 — 하지만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될 테지만)

내가 너에게 말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 우리는 여기서 히로코의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그녀의 아들, 또 다른 여동생과 어머니를 돕는 분까지 이렇게 여럿이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만 있으면 생각보다 편하지가 않아.

(그게 내가 네게 말해 줄 문제 중에 하나야.)

내가 말한 호텔은 한달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해.

그러니 그곳에서 출발하기 편리한 시간대로 계획을 세우고 비행기를 예약했으면 내게 그 날짜를 편지해서 알려주렴.

그러면 나는 호텔을 예약해 둘게 (또 호텔에서 몇일 동안 머물지도 말해줘)

언어 장벽이 좀 문제가 될 거라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가족을 축복하시길 바라며

사랑을 담아, 아빠가

PAGE #27

사랑하는 은자에게

네가 친히 보내 준 10만엔이 잘 도착해 계좌에 입금되었어

이 관대한 선물에 대해 너와 남편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특히 마이클이 3월말 의과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제 충분한 재정이 있으니 큰 도움이 될 거란다.

마이클은 이 지역에 있는 병원 몇 군데 인터뷰가 있어서 11월 말까지 여기에 있었어.

그는 졸업 후 일 할 두 군데 병원에 합격했어.

하지만 두번째 인터뷰 후에— 더 이상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걸 선택하기로 했단다.

그 병원이 마이클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기도 하고 분명히 마이클도 그들(병원 관리자들)에게 가장 적합할거야.

그들이 마이클과 함께 일하기를 간절히 바랬거든.

PAGE 28

1992년 11월 25일

사랑하는 운자에게

이전에 편지하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장기간에 걸친 질병으로 건강상 문제가 좀 있었단다.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약한 부분이 있어.

내가 전화하기 전 토요일에, 앞 이 3개가 부러졌어. 그날은 공휴일이어서 바로 치과에 갈 수가 없었단다.

월요일에 가려고 했는데, 일요일 밤에 열흘 동안이나 지속된 극심한 복통(틈새탈장증상이란다)이 시작되었어.

(그 날이 내가 전화한 날이야 네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 전화줘서 고맙다)

그리고 마침내 치과에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라앉아서 치과에 갔다.

의사 선생님은 완전히 치료를 끝마치려면 6-7번은 와야한다고 하더구나.

먼저 뿌리신경을 제거했어. 그런데 그 다음 방문일 전에 내가 독감에 또 걸렸지 뭐니.

의사는 반복되는 유형의 감기라고 하더구나.

나는 두번이나 회복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루 반나절 만에 다시 증상이 나타났어.

PAGE 29

1994년 1월 18일

사랑하는 운자에게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니?

아직 이스라엘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거란 걸 알고 있지만, 서울에 며칠 방문할 계획을 말해주려고 편지 쓴다.

내가 12월에 진희씨에게 전화상으로 말한대로 1월 31일 12시 도착 비행기로 서울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편지를 받으면 곧장 그 시간에 내가 가도 괜찮은지 확인 전화 달라고 진희씨에게 말해주겠니?

(078-731-4505)

곧 만나기를 바라며,

사랑을 담아, 아빠가

PAGE 33

3월 3일

나의 사랑하는 운자에게

전화주어서 고맙다.

나를 걱정해주는 너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나는 네 목소리를 듣고 정말 행복했다는 것과 또 내가 성미가 고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네게 알려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써.

내가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그때 때문에 나를 성미가 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렴, 제발

만약 네가 나를 성미가 고약한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나에게 정말 큰 고통이란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니까 말야.

나는 단지 네가 걱정하는 게 싫었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나 자신조차도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나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나는 내가 정말 빌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³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겸손한 삶을 살았고, 행복했지.

왜 나는 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그가 멀지 않았다고 말할 때면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함께 있을 거라고 늘 생각해왔거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도시에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새로운 집들을 짓기 시작했어.

우리 집도 반쯤 부서졌지만 어머니와 내가 지붕이 새지 않도록 수리했다.

내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며 우리가 이렇게 미친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이곳에서 꺼내셨던거지.

TV와 서랍장들은 마이클이 자려고 했던 곳이고, 큰 옷장은 산드라가 자려고 했던 곳이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언제 돌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 시간을 잘 기억하지 못해.

최근에야 뉴스를 보기 시작했고, 신문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다.

나는 단순히 지금만을 생각하고 있어.

오로지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아주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가고 있다고 확신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작은 사람이지만, 나는 내 온 힘을 다해 노력해보려고 한다.

그러니 너무 염려 말거라, 알았지?

니와 너의 가족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기도하고 있다.

또 편지할게. 잘 지내렴.

사랑을 담아, 아빠&엄마가

PAGE 35

은자와 가족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묵상하는 이 절기에 인사 전한다.

네 소식을 들으니 정말로 행복하구나.

생일축하카드 보내주어 고맙다

곧 편지하마.

사랑을 담아, 아빠가

- The End -